

第102回(定例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時 2000年 6月 22日(木) 10時02分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鐘路區廳長에 대한 區政質問의 件

附議된案件

1. 鐘路區廳長에 대한 區政質問의 件 1面

(10時02分 開議)

○議長 洪承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종로구의회 개원 9주년 기념식에 여러 의원
 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과 의회사
 무국, 집행부에서도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무사히
 끝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
 고 어제 9주년 기념식이 끝나자마자 우리 나라에
 많은 가뭄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단비가 내리고
 축복의 단비가 내리는 이러한 마당에서 오늘 구정
 질문을 시작하게 된 것을 참으로 반갑게 생각합니
 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정질
 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
 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 鐘路區廳長에 대한 區政質問의 件

○議長 洪承台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청장에 대
 한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로구청장에 대한 구
 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본회의의 진행에 대하
 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접수순서에 따라 6월

22일은 李東奎議員 외 5인의 의원이 질문을 하고,
 6월 23일은 吳弼根議員 외 5인의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건수는 42건으로 접수되었
 으며, 질문하실 시간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
 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제한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
 탁드리는 바입니다. 회의진행의 방법은 능률적이
 고 또는 회의의 진행에 원만함을 위해서 오전에는
 일괄 질문을 하고 오후에는 일괄 답변을 듣는 순
 서로 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에는 일괄 질문과 오후에
 는 일괄 답변 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겠습
 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접수된 순서에 따라 李東奎議員부터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李東奎議員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신3동 출
 신 李東奎議員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
 시는 것처럼 지난 6월 14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
 담은 분단 반세기의 벽을 넘어 화해와 협력의 통

일의 물꼬를 터났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는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 정치 문화의 일변지인 종로구의회와 집행부인 종로구청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모범 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우리 한민족 모두가 소원하는 통일도 그만큼 빨리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종로구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洪承台 議長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밤낮이 따로 없이 발로 뛰는 鄭興鎭 區廳長님과 1,400여 종로구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구민회관이 '97년 9월에 착공하여 2년 4개월여 공사 끝에 지난 2월 10일에 아주 성대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공사기간 중에 어려운 IMF라는 그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 129억원의 지원을 받는 등 그러한 자금을 가지고 공사를 무난히 마무리할 수 있었기에 본 의원은 물론 우리 종로구민들의 기쁨과 감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었습니다. 모두 어려운 시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개원된 구민회관은 종로구의 소중한 자산이며 또한 보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의 문화 체육 공간으로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또한 운영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민회관의 개관을 앞둔 지난 12월 13일에 구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본 의회에서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전면 개정안을 처리했던 것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은 종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구민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회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동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기능, 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 없이 구민회관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지나 않을까 하고 본 의원은 심히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집행부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구청 관련 간부와 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그 위원 속에 구의원 두세 분 정도를 더 별도로 위촉하여 구민회관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요지의 제안설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구민회관 운영에 있어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의 독단적 결정을 막자는 것이 기본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컨대 문화 체육에 관심이 있는 분과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자문을 받아 구민회관을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구민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00년 1월 12일 본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시행규칙도 전면 수정 보완하여 지난 2월 21일 공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개관 4개월이 경과하도록 또한 조례 개정된 지 6개월이 넘도록 구민회관 운영위원회는 구성조차도 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구민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업무태만으로 인한 것인지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종로구의회를 경시해서 허언을 했던 것인지 그 사유를 구청장님께서서는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종로구의회에서는 주민들에게 군림하는 그러한 공무원에서 주민을 주인처럼 만드는 아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친절을 공무원의 제일 덕목으로 강조한다라는 등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었습니다마는 그 결과 주민만족도 수준을 넘어 주민 감동 서비스로 드디어 칭찬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99년 1월에 종로구 친절도우미팀이라는 전담추진반을 만들어 친절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자체교육 394회 연인원 2만 4,982명 외부위탁교육 3회에 걸쳐 18명, 우수기관 견학이 20회에 걸쳐 80명 등 총 417회에 걸쳐 연인원 24만 3,080명을 교육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99년 7월에 베스트서비스기관 선정, '99년 8월 서울시 전화친절도 1위, 조선일보, 국민일보 등 각종 언론매체로부터 17회의 긍정 보도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한 바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행정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서비스의 기준, 절차, 방법 또한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11개 분야의 행정서비스현장을 제정 시행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鄭興鎭 區廳長님께서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위 말하는 이권부서나 즉 인허가부서에서는 허가와 규제를 담당하는 그러한 부서에서는 대단히 권위적입니다. 불친절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주민들이 지역에서 전화 한 통화를 하더라도 제대로 받는 예가 없습니다. 민원부서를 제외한 기술부서나 인허가부서에서는 우리 주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러한 부분에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친절교육에 소요된 비용을 살펴보면 '99년도에 1,500여 만원이라는 돈을 사용했고, 금년에는 400만원이 증가된 1,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투자비용 이상으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효과성이 충분하지 못한 예산 투자는 예산의 낭비라고 보는데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그 용처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직원 친절교육은 천편일률적인 교육보다는 민원인으로부터 불친절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은 직원이나 그러한 과별, 계별로 교육을 하는 것이 바쁜 직원들의 시간도 또한 절약할 수 있고 예산도 절약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교육 방향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기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질의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에 본 의원은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이 구정질문이 구정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경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洪承台 李東奎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金福同議員!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福同議員 종로5·6가동 출신 金福同議員입니다. 지난 6월 14일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함성과 큰 박수를 보내고 했습니다. 앞에서 동료 의원께서 좋은 인사말을 했기 때문에 인사말을 생각하기로 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해오신 洪承台 議長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으뜸 복지 구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鄭興鎭 區廳長님과 1,400여 명 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종로구 자원봉사은행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원봉사의 역할과 그 대상은 무궁무진한데도 관에서 운영하는 봉사활동 단체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단체들의 활동은 소극적이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 구청 사회복지과 혹은 동사무소에 연락하여 봉사활동을 스스로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대부분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자원봉사를 할지 몰라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 순수한 우리 구 주관으로 자원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더라도 구성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시기에 구립 종로구 자원봉사은행을 만들어 운영한다면 종로구민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봉사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봉사활동 구성 방법은 봉사자들의 수첩과 통장을 만들어 언제 어디서 어떤 봉사를 했는지 수첩에 기재하고 통장에 인장을 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면 본인이나 가족이 봉사를 받아야 될 입장이 될 때 통장을 은행에 제시하여 기록된 시

간 내에서 무료봉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봉사를 하고도 어느 부서에서 몇 시간 봉사를 했다는 기록과 장부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아 관리가 허술하였지만 본인이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수첩 하나만 제시하면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운영하다보면 사회에 봉사해서 좋고 자신의 훗날에 올지도 모르는 만일에 대비하여 도움을 주고받아 주민 서로간에 참여와 사랑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처럼 아름다운 종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자원봉사는 은행의 운영 방법은 종로 자원봉사는 은행 이사회를 결성하여 명예 회장과 명예이사장, 회장과 이사장, 운영위원장을 각 1인씩 선정하고 약간의 운영위원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민 스스로 사회에 봉사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주민 스스로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을 확신하면서 본 의원은 자원봉사는 은행의 설립 추진을 강력히 주장하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무허가건축물의 단속 대상은 '81년 12월 31일 이후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의 무단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구조변경 등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펴 무허가건물의 신발생을 예방하는 데 주력하여 일요일과 공휴일까지도 특별순찰반을 편성하여 다각적인 노력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에서는 항공촬영에 적발되었다고 하여 1차 계고장이 나간 지 며칠 되지 않아 개인재산, 즉 주택에 심지어는 가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몇십만원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 때문에 힘이 없는 구민들이 재산압류를 당하고 있는데 구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데는 행정절차에 따르지 못하면 따라서 고발이 있기 전에 통보를 하고 그래도 안되면 관계공무원이 직접 방문을 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적법한 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은 일인데도 책상에 앉아서 선량한 구민들의 재산 수백만원짜리를 단 몇십만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으로 재산을 압류하여 구민들을 울리는 행정집행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

본 의원은 심경이 착잡하기만 합니다. 요즘은 애기로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구청에 줄이 있으면 별일이 아니고 없으면 철거경고장 강제이행금을 징수하여 늦게 내면 주택을 가압류하는 행정이 민선시대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어렵게 생활하면서 조그마한 재산을 갖고 살고 있으면서 빚물받이나 장독대 두세 평 정도도 되지 않는 불법건축물들을 항공촬영에 판독되었다는 이유로 서민들에게 엄청난 법적 제재를 가하는데 이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발로 뛰는 예방 단속행정으로 현장확인 후 과감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재차 건의드리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날로 늘어만가는 노점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종로는 노점상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로환경정비는 종로1가와 청계천, 대학로 등에 가로정비기동반을 2개 조로 매일 2회 이상 순찰 정비단속을 하고 취약지역은 상주근무로 5,6명씩 편성하여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몰 후 노점상을 잠정허용지역으로 선정한 종로2가, 6가, 청계2가, 8가, 왕산로 등은 종로거리에 노점상이 더 크게 성행하고 있어 주요 간선도로가 노점상과 노상적치물로 시민과 차량 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심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문제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시원한 답변이 없고 노점상 때문에 걷고 싶은 종로거리를 걷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노점상이 타구에 비해 늘어만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종로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보고 느낀 바로는 무슨 기업식으로 대형화되어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의 노점상의 공간을 좁게 일률적으로 크기를 정하고 주변에 노점상이 또 생겼을 경우 다시 생긴 노점상에서 양쪽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한 두 곳

을 할인하여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노점상 관리를 한다면 더이상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노점상이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은 어떠신지요?

네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종로구는 청소 대행업체에 여러 회사가 참여하고 수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종로구는 문화 일번지가 되어 상주인구는 18만으로 나와있으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주간유동인구는 수백만 인구가 운집하여 이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는 우리 종로구에서 고품질의 서비스 행정으로 청소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관할 청소대행업체에서도 최선을 다해 청소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쓰레기규격봉투에 넣어진 쓰레기만 치워주고 그렇지 못한 쓰레기는 치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에서는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해서라도 유동인구가 버리고 간 잔재쓰레기가 치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격봉투에 넣어지지 않은 재활용쓰레기 발생지역인 종로5·6가동은 제품공장이 많고 중소기업 상공업지구로 형성되어 있어서 재활용쓰레기가 아주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도 신속한 처리가 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재활용쓰레기만이라도 수거되도록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행정이 바르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청소대행업자에게 매일 청소일지를 해당 동 자치센터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후 점수제를 적용하여 연말에 대행업체 선정 시에 일단 점수가 미달될 때는 우리 구 청소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을 명시해 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재래식 화장실 사용 가구가 835건이며 분뇨 및 정화조 미수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자가 101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미수거자 대부분이 화장실을 하수구에 연결한 집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주택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몇 동에 몇 세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정화조는 만들고 하수도로 연결하면 하수도가 깨끗해질 리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구청이나 주민들 모두 합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정화조관리법을 어기는 행위가 있을 때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시켜 이 돈으로 정화조를 개조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얼마전 지역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직접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는데 종로구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종로구는 길거리에 재떨이가 없는 깨끗한 종로를 자랑하기도 하였습시다라는 며칠 전부터 종로 거리에 다시 재떨이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명분의 예산으로 재떨이를 제작하였는지와 제작회사는 어느 회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떨이 제작에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미관상 보기도 좋고 실용적으로 보완하여 비가 왔을 때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했어야 하며 또한 분리형으로 만들었으면 그렇게 지저분하게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아름다운 우리 종로에는 탐골공원, 종묘공원, 마로니에공원 등 크고 작은 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종로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자랑인 종묘공원에는 매일 크고 작은 집회가 열리고 있어 모처럼 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회 후 공원에서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버려지고 시설이 파손되고 있어 그 처리비용과 복구비용을 우리 구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우리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많은 예산을 들여 종묘공원을 단장하고 조성한 바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각종 크고 작은 집회가 또 다시 개최되어 공원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채 점차 집회장소로

전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에 파악한 대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의 경우 2000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무려 60회의 크고 작은 집회가 개최되었으며 집회참석 인원은 7만 1,100명이었습니다. 그 중 월별로 개최된 대표적인 집회는 2월 29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주최로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다짐 유권자 서명식 후 종로까지 행진한 바 있습니다. 3월 8일 9시부터 17시까지 전국 관공업 보상촉구 집회가 2,000여 명이 참석하여 개최한 후 종로까지 행진한 적이 있습니다. 4월 20일 18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 한국교회 부활절 예배위원회 주최로 5만여 명이 참석하여 집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4월 22일 14시부터 16시 새마을운동중앙회 주최로 2,000여 명의 참석과 국가자원절약 국민운동 선포식 개최, 5월 20일 12시부터 16시 전국 예비고사 공동투쟁본부 주최로 1,300여 명이 참석하여 교직발전 종합방안 철회요구 집회가 있었으며, 5월 30일 12시 30분부터 14시까지 전국건설연맹 노조 주최로 2,000여 명이 참석하여 건설의 활성화 및 건설노동자 실업대책 촉구 집회 후 종묘공원까지 행진하는 등 크고 작은 집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옥외집회 및 시위신고는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가 아니면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아 주고 있기 때문에 집회 주최측이 시위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원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선택하여 집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찰의 일방적인 집회신고 접수로 공원에서의 집회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관할 서에서 집회신고를 받기 전에 집회 주최측이 우리 구에 장소 사용허락을 받은 후 집회신고를 받도록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리 구의 장소사용 허락 없이는 집회를 거부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관할 서에 통보할 방안과 집회 후 공원시설 파손시에는 피해보상을 사진 촬영해 두었다가 집회 후 주최측에 복구비용을 청구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

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議長 洪承台 金福同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載弘議員!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載弘委員 평창동의 安載弘議員입니다. '99년에는 12월에 구정질문을 했는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이제 6월에 정례회를 맞아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로구의 행정은 지난 '91년도의 자치시대 이후에 괄목할만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서 중앙부서와 서울시로부터 많은 부분에서 최우수구 또는 우수구로 선정되었고 또 많은 대중매체로부터 찬사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많은 인센티브가 그리고 부상이 수여되기도 하였습니다. 직원들 또한 각종 구기대회나 경연대회에서 훌륭한 결과를 얻어서 자랑스러운 종로의 자긍심을 우리 주민들에게 심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1,400여 직원 여러분들은 이 종로의 주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찾아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실시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첫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전환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동사무소의 직원을 인원을 축소해서 기존의 인원 중 약 50%를 축소해서 꼭 필요한 인원만 남기고 시설을 주민의 각종 자율행사나 문화, 교양 프로그램의 주민문화센터 위주로 운영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기본 자치센터 실시계획은 올 2000년 6월 30일자로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전체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관련법규의 미비로 그 실시가 지체되었고 자치센터 실시를 위한 조례(안)의 기본규칙이 많은 말쑥의 소지가 있어 계속 연기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의 동기능 전환 추진계획에 의하면 명륜3가동과 송인2동을 제외한 17개의 기능전환을 금년 4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9월 30일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소요되

는 예산은 시설보수비와 비품구입비 등을 포함해서 약 22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개보수와 사무인력의 조정 및 재배치,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한 정비, 주민의 홍보, 자치위원회의 구성 등 중요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능의 전환을 위한 세부계획들이 어느 선까지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예정대로 추진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입법 예고된 조례의 내용 중에 상당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홍보부족의 문제와 주민자치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하향식이며 일방통행식 기능전환은 다양한 주민욕구에 불충분하고 빈약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을 동장이 위촉하는 문제 등 특히 구의원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정립의 문제 등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金福同議員께서도 쓰레기 수거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쓰레기처리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쓰레기의 수거는 우리 구가 판매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한 쓰레기에 한해서만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약 50% 이상의 쓰레기가 비규격봉투나 마대에 담겨져서 수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에 대한 과태료도 그 실적이 미미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면서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결국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1999년 11월의 구정질문 때와 마찬가지로 쓰레기 수거의 민간위탁을 심각히 고려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도 수도권매립지의 반입거부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민간처리업자 위탁비용은 톤당 5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톤당 1만 6,320원보다 무려

3.6배정도가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요예산을 우리 구가 전액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주차장건립을 통해서 주민의 주차편리를 도모하고 그 사용이 적절히 이용되어야 할 것인데 '98년도에는 207억, '99년도에는 시설 및 불용예산이 무려 212억 7,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년 200억 이상의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용액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이 특별회계 목적에 일치하지 않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면 차라리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서 당면한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결하거나 또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지방채 90억원을 상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 설치의 근본목적이 주민의 주차편리를 위한 그러한 정책이라면 주차장설치와 관련한 불합리한 법령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히 자치구청장의 판단 하에 주차장의 설치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구의 세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자치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재정입니다.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지방세의 수입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약 70%를 약간 상회하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 세입은 가장 중요한 재정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99년도의 지방세 일반회계의 미수납액은 무려 176억 5,965만원에 달하고 불납결손액은 3억 9,534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98년도 대비 미수납액의 증가율은 29.5%, 불납결손액은 3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역시 '99년도 미수납액이 182억 8,542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원의 발굴 역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9년도의 사업소세 수납실적은 68억 1,264만원입니다. IMF의 영향이 컸던 '98년보다 무려 11.5% 8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사업소세 징수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세원발굴 부진이 주요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외수입도 투명한 회계계정을 통해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로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서 수익사업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효자동사랑방 매점의 '99년 운영수익 4,000만원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회계처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예산편성은 한정된 재원을 나눠서 여러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관계로 인해서 그 산출근거가 적절해야 하고 그 오차의 범위도 적어야 할 것이나 '99년도 청소행정 일용인부임 예산액과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 119억 2,997만원 중 지출원인행위액이 96억 6,440만원, 불용액이 22억 6,55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18.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의 오류는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99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어도 오차의 범위를 인정하고 예산편성의 융통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18억에서 20억에 가까운 예산이 예산편성의 오류로 인하여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였다고 생각되고 이와 같은 예산편성의 오류나 산출근거의 불명확성 등이 2000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시 조금도 고려되지 않아서 2000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에 있어 좀더 합리적이고 치밀한 편성이 이루어졌더라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방침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료광고를 위한 조례와 주민설명

회, 간담회, 공청회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제안합니다. 유료광고를 위한 조례는 종로구에서 발간하는 종로사랑지라는 반상회보와 각 국·실에서 발행하는 많은 책자, 정기간행물 또는 비정기간행물 또는 안내책자 등에 유료광고를 실어서 자치구 세입을 증대시키고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오며 해당업체의 홍보효과를 거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주민공청회에 관한 조례는 자치구에서 주민을 상대로 고시하거나 응답을 요청하며 입법예고하는 모든 내용들은 주민들이 제한된 매체로 인해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그 정보이용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구에서 결정하는 주요한 정책결정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해당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좀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의회와 협력하여 공청회, 간담회, 설명회의 과정을 거치게 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그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을 들어서 정책결정에 반영한다면 의사결정에 있어 주민자치의 기본원칙에 충실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발전이나 지방자치시대의 자치구의 발전은 바로 직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각종 연·기금의 개정으로 인한 손실의 우려와 나아지지 않는 보수체계, 언제 울지 모르는 구조조정의 피로움들로 여러 갈등 속에 계십니다. 이러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현재 근무하고 계시고 현재 여러 가지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종로 지방자치단체를 끌고 가시는 큰 수레바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종로주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변화가 팀을 변화시키고 조직 전체의 변화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변화는 이 종로를 변화시키는 큰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의 사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언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洪承台 安載弘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炯述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炯述議員 안녕하세요? 가회동 출신 李炯述議員입니다. 존경하는 鄭興鎭 區廳長님! 종로 발전과 살기 좋은 종로 가꾸기에 언제나 고생 많으십니다.

새천년 21세기 뉴밀레니엄시대는 지구촌이 일일 생활권에, 이웃집 드나드는 그런 지구촌이 한 이웃이 되는 이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ASEM 총회,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등 많은 외국관광객이 수없이 우리 나라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 찾아오는 외국 손님들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곳이 경복궁과 비원, 창덕궁 사이의 북촌마을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양대 궁궐을 찾게 되면 분명히 600년 된 북촌마을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정말 흉물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촌마을 전반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북촌마을과 돈화문 앞을 경유해서 낙원동, 인사동, 북촌마을 전체를 M자형으로 관광특구, 문화특구로 지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해 가지고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웃 중구의 명동은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시고 왜 북촌마을을 관광특구, 문화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수없이 말을 했는데도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이웃 중구는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관광특구로 지정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로구가 중구보다는 역사의 원뿌리가 종로입니다. 청장님께서 종로의 역사 가꾸기에는 신경을 덜 쓰지 않나 해서 다소 이 기회에 어떻게 하면 역사 가꾸기에 역점을 두실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북촌마을에 크고 작은 문화사적지가 마을곳곳에 준비하게 산재되어 있는데 그 어느 하나 제대로 가꾸어 놓

은 곳이 없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장이 종로 가꾸기에 신경은 많이 쓰고 역사 가꾸기에는 소홀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흉물스럽게 남아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오늘 이 기회에 2001년은 분명히 컴퓨터 시대보다 역사 가꾸는 데 초점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적이면 이 종로는 전통문화역사가 가장 소중한 곳 이기에 청장님께서 역사를 가꾸는 데 더 많은 정성을 쏟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원 담장 옆에 있는 원서공원에 야외 전통혼례식장을 만들어서 그곳을 세계 관광명소로 해주십시오 하고 이 자리에서 먼저 청장님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야외 전통혼례식을 치르려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치르지를 못합니다. 아담한 경복궁과 창덕궁에 버금가는 고풍스런 건물을 지어서 비가 오면사람들이 들어가서 비도 피하고 페백도 드리고 해서 TV도 동원해서 북촌의 모습을 널리 알리고 홍보를 하면 그 곳이 분명히 세계 관광명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운현궁을 지금도 가보면 외국관광객이 한국전통혼례를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보다는 돈화문 옆 외국관광객이 수시로 드나드는 원서공원이 아주 좋은 자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이 지역에 건물을 하나 지어서 전통혼례식을 치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개설해 주십시오 해서 수시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도 답보상태입니다. 장소가 어떻니, 학교가 말을 안 듣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답변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공사가 3년 걸린다는 얘기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겨울방학에 시작해서 신학기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운동장 부분을 덮을 수 있고 또 바닥이 마사토라서 공사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또 지형도 도로보다 높아서 지하주차장 하기 편하고, 거기에다 지하주차장을 하면 바로 가회동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 적치물, 비원담장 옆에 있는 쓰레기적치물 이런 것도 지하 한쪽에다 넣어놓으면 도

로도 깨끗해지고 관광명소에 이런 훌륭한 것을 거리에 방치해 놓으면 관광명소가 될 수 없기에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아직까지도 답보상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답변을 듣고 싶고 만약에 이것이 계속 늦어지면 대동정보상업학교가 한 중심지에 있습니다. 위치가 엄청 넓습니다. 이 대동정보상업학교를 서울시와 협의해서 외곽으로 이전하고 거기에다가 전통한옥마을을 조성하고 전통한옥호텔도 만들어서 외국관광객이 와서 유해 가면 관광수입도 엄청 많아질 겁니다. 그 지하에다 주차장을 설치하면 도로에 산재되어 있는 불법차량들도 전부 해결되고 북촌마을 전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만약에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이 조금이라도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경복궁 앞에 있는 기무사 자리를 여러 채널을 통해 부탁을 드려서 외곽으로 옮겨가고 이 장소에다가 종합적인 문화공간 즉 현대미술관, 과천에다가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미술관을 해냈는데 거기에 가본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외국사람들이 수시로 들러야 되는 이 관광명소를 지방에 아무리 잘 해봐도 사람이 안 가면 명소의 실효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 북촌이라는 이 지역 인사동이 지역이 왜 관광명소로 됐느냐 그러니 외국사람이 찾아오면 쉽게 들를 수 있는 위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미술관을 옮겨온다든지 역사종합박물관을 개설한다든지 이래서 외국관광객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국익에 보탬도 되고 우리 조상들의 많은 문화유산을 널리 홍보하는 좋은 장소도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기무사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저거는, 청장님! 대단히 힘이 센 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될텐데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이 잘 안된 것을 보면 청장님이 힘을 절반도 안 쓰신 것 같아서 섭섭한 감이 듭니다마는 오늘 이 기회에 빠른 시일 안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역사문화박물관을 세울 수 있도록

박물관 유치된다든지 미술관이 온다든지 이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 많은 좋은 답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북촌마을을 널리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북촌 대축제를 열어야 합니다. 외국도 가보면 골목골목에 역사축제, 그 나라의 전통된 부분을 골목골목에서 소축제, 대축제 해가지고 엽니다. 경복궁과 비원 이 사이가 정말 역사에 참 소중한 자리라고 본다면 북촌마을에 매년 정기적으로 TV에 MBC, KBS, SBS 모두 모셔다가 북촌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해서 북촌이 세계 속의 관광명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많은 힘을 쏟아주시면 북촌마을이 세계 속의 명소가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 매년 북촌축제를 여는 데 좀 힘을 쏟을 의향은 있으신지 답을 듣고자 합니다.

가회동에서 감사원 올라가는 잔여구간 도로개설 지점 205m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날 조사를 해보니 20m 올라가는 도로가 갑자기 15.5m 폭이 좁니다. 왜 주는가 봤더니 최종환이라는 재벌회장 집에 차량 들어가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4.5m를 점유해 가지고 옹벽을 둘러쳐서 2단 보차도로 이런 도로를 만든다면서 법에는 맞대요. 아무리 법에는 맞더라도 새로 개설되는 도로는 폭이 20m도되려면 20m가 유지되어야 하고 한쪽에 능선이 저 가지고 높아져도 안되고 어디 돌출부분이 튀어나와도 안될 겁니다. 법이 아무리 맞다고 보더라도 새로 개설되는 도로는 누가 보든지 훌륭한 모습이 나와서는 안되리라고 보고 그 점은 우리 주민들이 수없이 회의를 하고 삼환에 쫓아가서 당신이 법대로 하는 것은 좋지만 새로 개설되는 도로가 이래서 되겠느냐 해가지고 질타하고 해서 그것은 안하겠다고 했는데 경남빌라 바로 옆에 한옥 한 채가 한 2,3m 돌출이 됩니다. 그 부분은 새로 개설되는 도로는 분명히 그런 모습이 나와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이 점은 청장님께서 조사를 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면 좋을는지 거기에 대한 답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 종로구민 20만명이 존경스

럽게 선출된 청장님, 지방자치단체장은 종로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치안담당은 물론 경찰에 있다고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다고 본다면 종로구 가회동, 계동, 원서동, 재동 법정동 4개동에 '97년도에 파출소가 없어졌습니다. 2000년 6월 1일자에 어느날 갑자기 이 파출소마저 없어졌습니다. 주민이 7,000명이 넘습니다. 이것을 왜 없었느냐고 그랬더니 구조조정 차원에서 없었다고 합니다. 주민이 불안하고 도둑이 들끓고 주민이 항상 불안하게 잠을 설친다고 하면 물론 치안책임은 경찰청에 있다손 치더라도 청장님은 지방자치단체의 우리 구민이 뽑은 청장입니다. 아울러 민생치안도 함께 책임이 좀 있으리라고 보고 이 파출소 하나는 뒤야 되겠다, 법정 4개동에 하나는 두어야 되겠다고 했더니 경찰 고위층의 얘기는 내년이면 종로관내의 많은 부분에 없애고 가회동, 삼청동 여기의 파출소마저 하나 없앤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조조정 차원도 좋지만 예산 절감도 좋지만 구조조정 하는 것은 다른 부분에 먼저 하고 민생치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회동, 계동, 재동, 원서동에 도둑이 없다고 그러는데 청장님께서도 동장을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작년도와 금년도에 몇 건이 도둑이 들었는지 이 숫자를 서면으로 좀 답을 해주시고 주민들은 경찰청에서 나오면 겁이 나서 얘기를 안합니다. 도둑을 맞아 가지고 이웃집에 전부 도둑신고를 하면 와 가지고 오라, 가라 해가지고 시끄럽고 찾아주지도 않고 하니까 신고를 안합니다. 아주머니 13사람 모인 자리에서 7사람이 도둑을 맞았습니다. 이 점도 청장님이 유념해주시고 행정동 가회동에 파출소가 없는 데 대해서 주민들은 많은 민생치안에 불안해하고 있으니 어떻게 조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내빈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洪承台 李炯述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崔康洵議員!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康洵議員 존경하는 洪承台 議長님과 吳錦南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친절을 바탕으로 고품질 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으뜸 종로구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는 鄭興鎭 區廳長님과 盧張鐸 副區廳長님! 그리고 1,4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崔康洵議員입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미력이나마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지금부터 구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하여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경제적 좌절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와 결손 가정 등 소외계층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명과 문화 속에서 여가활동 증가와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복지행정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고 복지서비스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자칫하면 밝고 씩씩하게 자라야 할 청소년을 외면하기 쉽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주역입니다. 이들을 건전한 여가생활로 심신을 건강하게 육성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평소 입시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정서순화와 청소년끼리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바른 청소년 육성으로 건전 사회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로 유적지 탐방이나 연극 관람, 공연 관람, 갯벌탐사 등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역 가까이에서는 언제든지 시간 나는 대로 찾아가 줌을 발산할 수 있는 청소년 건전 댄스사교장인 DDR 놀이문화센터는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것에 본 의원은 창신동에 자리잡고 있는 종로 구민회관에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DDR 댄스사교장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구 청소년들이 구민회관과 친숙해질 수 있어 구정

홍보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올해는 장마가 예년보다 빨리 시작되고 태풍 또한 우리 나라를 통과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어 지금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안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흔히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한 가장 효율적인 예산 절감방법은 재난에 미리 대처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5,500여 가구가 물에 잠겼던 동두천시의 신제방과 교량공사, 배수펌프장 공사는 보상문제로 지난 3월에야 착공하여 공정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3년째 연속 임진강 기류가 범람해 시가지가 침수됐던 문산읍, 파주시도 펌프장 토지보상 문제로 올 여름에도 수해위험을 안고 장마철을 넘겨야 하는 수해취약 지역의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채 극심한 장마피해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사고가 날 때마다 여기에 대한 각종 대책은 매년 제시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임시방편적 행정 때문에 매년 200명 정도가 숨지고 평균 5,00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홍수피해가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현대문명과 과학의 발달이 극에 달하여도 자연재해 자체는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선진행정인 것입니다. 여기에 종로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종로구 관내에 공사가 진행 중인 창신지구, 송인지구 도로개설 공사와 필운동-신교동간 도로개설 공사 등 공사중인 곳과 공사가 완료된 지역주변 절개지, 사적지구와 행촌지구, 창신, 송인지구, 구기동, 평창동 주변의 택지조성 경사지와 축대, 교량 공공시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 장마철 위험 여부와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보호막을 쌓는 등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대형사고는 시민들의 신고에 의존하여 사전에 예측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시민들로 하여금 가정과

직장 생활 주변에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안전의식 경험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종로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이들 위험지역에 대한 장마기 수방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력이나마 우리 구 주민복지와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洪承台 崔康洵議員! 수고하셨습니다. 議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또한 방청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주민과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질문과 경청을 위해 모두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전의 일괄 질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7分 會議中止)

(14時12分 繼續開議)

○議長 洪承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鄭興鎭 區廳長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鄭興鎭 區廳長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鄭興鎭 존경하옵는 洪承台 議長님! 吳錦南 副議長님! 議員님 여러분! 2000년도 종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의원님들 고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영광된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참으로 의미있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제 9주년 개원기념식에 의원님들을 뵙고 또 다시 오늘 이렇게 뵙게 되었는데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달려온 9해 성상(星霜)이 크게 빛나서 우리 종로구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다시 한 번 의원님들 그 노고를 20만 구민과 함께 치하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이 외람되지만 거의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상임위에서 거른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하

지만 부족하지만 단체의 장이 직접 나와서 책임있고 비중있는 답변을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저는 생각되고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외람된 말씀을 청컨대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질문용지를 저희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의원님은 순서를 바꾸신다거나 또는 요지를 주시지 않은 것을 여기서 갑작스럽게 질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변을 준비하느라 좀 시간이 늦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해량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특별위 간사를 하시고 창신3동 출신인 李東奎議員께서 두 가지의 질문을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구민회관 운영위원회가 아직까지 운영되지 않는 이유를 질문 주셨습니다. 2000년 1월, 구민회관 운영위원회 15인 이내죠. 구성을 조례로 제정한 것은 준공 후 구민회관 관리부서에서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기능과 수탁법인의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5명 기능이 중복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는데 지금 운영위가 가동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구민회관은 구청장 책임하에 직영해야 하나 필요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도록 조례 제3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된다면 운영위원회가 필요한 것이고 위탁해지시 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탁해지시에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구청장 책임하에 집행할 때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지금 이사회로 아, 자꾸 말이 헷갈리네요. 혼동됩니다. 구청장이 직영해야 하나 필요시에 시설관리공단에 할 때에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이사회를 하고 또 새로운 사정으로 위탁해지시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탁해지시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우리 구 직원의 친절도는 매우 향상된 것으로 보이니 인·허가 및 기술직 직원들은 아직도 불친절한 바 친절관련 '99년도 세무 예산집행 내역과 앞으로의 친절교육 방향 등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친절 문제는 백번, 천번 얘기해도 그야말로 모자람이 있는 수없이 우리는 이것을 해야만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우리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가장 큰 영예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반드시 저는 단서조항을 붙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친절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원부서를 비롯해서 많은 구민을 대하는 그런 부서는 친절해지는 편이지만 그 여타 수많은 공무원이 전부다 그렇게 친절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도 편성하고 교육도 시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람되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업도 중요하지만 천품도 중요하다고 경험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품이 좀 딱딱한 사람은 교육을 상당기간 시켜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끝없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친절교육에 대해서 더한 走馬加鞭식의 교육을 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한 가지 저희가 베스트서비스 기관으로 의회 들어오는 현관 앞에 동판을 MBC로부터 받았습니다마는 한 가지 기쁜 소식은 그랑프리 고객센터 대상 수상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수상 및 발표는 금년 7월 13일날 프라자호텔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종로구청이요. 2위는 대한생명, 3위는 호텔 신라인데요 프랑스에서 조사한 것이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아주 공인된 그런 쾌거라고 이렇게 기쁜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신문에 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직도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부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질문하신 예산집행 내역과 그 앞으로의 교육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99년도 친절관련 세무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친절도우미팀 위탁교육비가 732만 1,000원이고 우수부서 시상금이 200만원 그리고 교육자재 구

매비가 334만 3,000원이고 또 카피, 플래카드, 서류 보세요. 커피라고 되어 있어요. 이대로 읽으면 제가 망신이죠. 카피죠. 플래카드 운영비가 254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투자액에 비해서 매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 다마는 아무튼 소금같이 짜게 해서 적절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 직원의 친절생활화를 위해서 실효성있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극 발굴 시행하고 불친절 직원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별, 개인별 관리를 해서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또 필요한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려서 행정 서비스 행정의 알찬 이행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더욱 친절한 종로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金福同議員님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질문해주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립 종로자원봉사은행을 신설하는데 집행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국 최초로 평화봉사단을 만들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종로구가 우수사례라고 해서 그 본보기로 모두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시달이 있었던 그런 자랑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종로가 여러 가지로 취약하고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의 자원봉사팀이 거의 대표적인 팀이 거의 종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부 모여서 우리 의견과 뜻을 같이 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훌륭한 업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자원봉사자 수첩과 통장 발행을 '98년도부터 제작했고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통장 발행은 앞으로 자원봉사증을 제작해서 실적을 전산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재산압류에 신중을 기해줄 것과 2평 내지 3평 소규모 생계형 무허가는 선처해줄 것을 요망하셨습니다. 역시 어려운 동네의 구의원을 하시다 보니까 수많은 민원에 접하고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법과 인정 사이에서 괴로워하시

는 의원님의 그 노고를 심분 이해하면서 저희도 이미 아시다시피 구청장협의회에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계속 주장해서 아시다시피 특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작년말에 제정이 돼서 85㎡ 미만의 주택의 경우는 허가내용과 다른 위법사항이 있더라도 금년 3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신고하면 양성화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속행정에서 아시다시피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 참으로 공무원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인정상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만약에 그것이 감사원에서 적출이 되면 그 공무원은 물론이고 우리 종로 전체의 공무원의 위상에 커다란 불명예도 되고 해서 이 경계에서 고민하는 의원님들과 저희가 정말 현명하게 노력해서 어려운 서민들의 눈물도 닦아주고 또 법치국가의 기틀도 지켜나가면서 해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노점상 노상적치물로 인한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해소방안 그리고 계속 증가하는 노점상 관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종로는 이삼백만의 유동인구가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 구민이 실제적으로 하나도 혜택도 받지 못하고 불편만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특히 노점상 문제는 정부에서는 생계형 노점상은 좀 지켜줘야 한다. 소위 봐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서울시에서는 단속을 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상충된 견해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지만 신규발생 억제를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신 것은 의원님들이 직접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도로 인력이나 예산이나 대폭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계 직접 건의했습니다. 종로의 특수 사정을 봐서라도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줘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6시에 퇴근하면 그 단속반이 퇴근한 뒤에 거의 노점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단속할 수가 없다. 실제적으로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단속케 한다면 특별근무수당을 초과수당을 줘야 하는데

이러한 근거도 없고 예산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사정을 봐서라도 이렇게 해줘야 한다 했는데 아직도 마이동풍 격으로 되어 있어서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신고가 들어온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해오는데 인원도 대폭 줄어서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 하나 뺏어오는 데도 20명이 붙어야 합니다. 그들은 아주 조직적이고 또 생사를 걸고 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워서 이것은 제가 단체장으로서 고민 중의 하나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해줘야 한다. 국가에서 이 사람들을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 허가를 내서 세금을 받든지 아니면 한쪽으로 싱가포르처럼 포장마차촌을 마련해서 오히려 관광단지화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우후죽순처럼 증가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을 수없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金福同議員님께서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저희들도 이것이 과제 중의 과제라고 생각되어져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에 서울시에 건의하고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ASEM이나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깐 같이 힘을 합해서 해야 할 일이다 해서 좀 참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버려져 방치된 쓰레기 처리 방법과 청소대행업체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등을 질문 주셨습니다.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불법 무단투기된 쓰레기로서 일차적으로 무단투기 행위자를 추적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한 후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청소소민원기동처리반을 투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기동처리반도 있고 단속반도 있다고 하지만 실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민도(民度)인데요 우리가 우리를 욕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된 얘기입니다만 의원님들도 우려하시는 것 같이 몰지각한 일부 시민들이 그렇게 무단투기를 상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그렇게 무단투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찾아오시고 저에게도 찾

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민들의 정말 양심적인 행동이 있음으로써 이런 규격봉투 사용이 제대로 되어질 것이고 또 거기에 항상 지적하신 미화원과의 뒷거래 이러한 것도 깨끗이 해소되지 않을까? 참으로 이것도 난제 중의 난제일 것입니다. 물론 이 쓰레기 문제는 우리 종로뿐 아니라 대한민국 232개 단체가 모두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종로는 저보다도 각 동네에서 항상 접해있는 의원님들이 더 큰 골치덩어리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앞으로 7월에 쓰레기 대란, 특히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있을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 뒤에 질문도 계십니다만 저희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종로는 너무나 불리하다는 것을 실감케 합니다. 좀 주택가와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공터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우리는 주요지역이라든가 군사지역, 문화재관리지역, 제한지역이 너무 많아서 참으로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계도하는 차원에서 단속반을 더 많이 늘려 가지고 그렇게 몰지각하게 무단투기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적출해서 그야말로 이런 행동도 아름다운 종로구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수제, 또 동장 확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노 및 정화조 미수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 및 재래식 화장실 단속사항은 어떤가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012개소의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중 465개의 실태를 조사한 바 하수구에 직접 연결된 화장실이 발견되지 않아 고발한 건수가 없으나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은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120건에 875만원 과태료를 '99년도에 부과했고 금년에는 100건에 8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하수도 직결 화장실 적발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화장실 신고센터를 청소행정과에 설치해서 주민이 수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로거리에 다시 설치한 길거리 재떨

이는 어느 예산으로 사용한 것이며 제조회사 내역 및 재원이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우리 구민의 공익에 대한 일이라면 구청장 직을 걸고서라도 투쟁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종로 네거리에는 우리 나라의 얼굴인데 거기에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몰지각한 시민들이 거기다가 담뱃불을 끄지 않고 그냥 넣고 신문지 같은 것을 쭉서 넣어서 거기서 화재가 발생해서 우리의 고귀한 혈세로 만든 쓰레기통이 검게 그을려 가지고 도시미관을 형편없이 만든 것은 물론입니다. 몰지각한 시민들이 쓰레기통에다 담배꽂초를 넣는 게 아니라 멀리서 던지기 때문에 주위가 항상 더러워지고 안된 말씀 같지만 가래침이 금방 허영게 고여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외국에 가셔서 아시겠지만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리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싸워야겠다는 그 생각으로 쓰레기통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나서서 쓰레기 투기를 하지 맙시다, 담배꽂초를 버리지 맙시다 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저희들도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마스크이나 독자 투고를 통해서 종로에 쓰레기통이 없어서는 안된다는 비난을 계속해왔습니다. 저희는 담당 국장님께서도 직접 투고를 해서 쓰레기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를 같이 맞대응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자꾸 권유를 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당분간 두는 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했는데 고집스럽게 그것을 지탱해 왔습니다만 저희가 그렇다면 당신들 주장이 그렇다면 실제로 봐보겠다. 그래서 얼마나 폐단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만약에 시민들이 그런 기초질서를 잘 지킨다면 그대로 두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철거할 것이다 하는 이런 각오로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 구입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 구매를 요청해 가지고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에서 제작, 납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작된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조금 다른 점은 그동안에는 밑바닥에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이 차고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멍을 냈고 조금 단점을 보완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분리형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분리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민도(民度)라고 말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유리병 종류, 휴지 종류 이렇게 써놓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했다는 것을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서 분리형, 통합형을 구분, 설치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고 금년도 예산액은 3,500만원인데 집행액은 3,044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15개를 설치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현재 경찰서에 신고를 득한 후 할 수 있는 집회를 구청이 신고를 받아 집회를 하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민을 보호하고 또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하는 층정에서 주신 고마우신 질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거 실외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시간, 장소, 주최자의 주소, 성명, 참가 예정 인원과 방법 등을 기재해서 시위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는 집시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게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약속하시기는 제가 하반기로 알고 있는데 지방경찰화 한다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직접 그 점에 대해서 의결을 해가지고 우리 종로에서 집회를 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나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중한 혈세로 만들어놓은 공원이거나 그런 곳을 많은 인원이 와서 짓밟고 부수고 하는 그런 일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도 기대가 큼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安載弘 市民行政委員會 幹事께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제도의 시

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이며 주민자치센터의 조직 및 시행계획에 있어 의회와 사전 협의할 의향은 없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계획, 그리고 구의원과 자치위원회간의 문제를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사부 동기능 전환 확대 시행지침에 의거 금년 9월 중 19개 동 전 동사무소에 전면 확대 시행할 예정이고 따라서 사무인력의 재조정에 따른 동사무소 여유시설을 지역주민의 복지, 문화, 편의시설을 갖춘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동청사 개·보수 공사를 실시해서 10월 중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청사가 협소, 노후해서 주민자치센터 시설 설치가 어려운 동사무소에서는 과다한 시설 투자를 억제하고 토지매입이 완료된 동사무소부터 연차계획에 의거 다기능 동청사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동 실시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주민 불편사항을 보완하고자 동사무소에 민원업무 처리, 주민자치센터 관리인원 등을 제외한 직원은 제반 여건을 종합 검토해서 가까이 배치할 예정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민원 처리반 편성과 민원중계센터 설치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조례를 제정 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서 구의원님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용방안의 대안과 특별회계 폐지 용의, 일반회계로 전환 그리고 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불합리한 법령의 개선 용의는 등을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특별회계는 법령과 조례의 사용 용도가 상당히 제한되어 '99년도말 현재 적립금과 불용액이 121여 억원으로 매년 누적금액이 증가되고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적립금 누적은 잘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적정부지 확보가 어렵고 타 용도로 전환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재원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적립금의 해소를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의 설치가 최우선 돼야 할 것으로 우리 구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관할 동네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별회계의 폐지와 주차장 설치시 구청장의 재량에 맞게 설치하는 방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서울시와 관계 부서에 적극 개정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서울시에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 한시법이라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감정이 아닌 실체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야말로 특별회계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쓰지 못하고 그게 잘못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하고 있는데 이게 행정편의 인지는 몰라도 서울시에서 잘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규격봉투 사용률이 50%밖에 되지 않고 있어 종량제는 실패했다고 봐야 하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도 미미하고 청소관련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을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대부분 주민이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를 단속해서 20개조 41명을 투입, 단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나 금년 5월말 현재 725건을 단속, 6,9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또한 청소관련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와 매립비로 구성되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환경미화원이 감소해도 신규로 채용하지 않고 줄어든 인력대신 매년 부분적으로 청소대행지역을 확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 말씀드려서 자연 감소되는 청소미화원이 꽤 됩니다. 그럼에도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지금 대항하고 있는 지역에 적절히 나누어서 이렇게 위탁경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安載弘議員님께서 이해하시겠지만 빠진 게 있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대책 그리고 '99사업소세 감소 원인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다. 2000년 4월 30일 우리 구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616억 2,800만원이며 그중 세외수입 체납액이 176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담보, 차량, 급여, 예금압류 등 채권확보와 징수소멸기간 5년이 경과된 체납자의 무재산, 소재불명 체납자는 결산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99년도 사업소세 감소 원인에 대해서는 종업원 감소에 따른 것으로 '98년도에 한국전기통신공사, 한솔그룹 등 30여 개의 대기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종업원이 대폭 줄어든 불가피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소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고 또 우리 재정자립을 위해서 우수한 기업체가 종로로 다시 돌아오도록 부단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김포매립지 반입료보다 3.6배 이상 비싼데도 불구하고 별도 처리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금년 9~10월 중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중지할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도 효율적인 대체를 하도록 음식물쓰레기 전문업체인 푸른환경주식회사와 처리 위탁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푸른환경은 강동구에서 민자유치한 업체로서 현재 11개 구청에서 위탁 처리할 예정이며, 11개 구청이 서울시에 처리비용 일부를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지원 불가 통보를 해왔습니다. 발생하는 쓰레기는 자치단체에서 자체 해결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나친 부담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효자동 사랑방 기념품 판매점 이윤에 대한 세외수입의 전환 여부를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가 '93년도 처음으로 구내식당을 열어 가지고 운영을 해왔으나 계속적인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종로가족이라고 불리는 공무원들의

복지, 후생 차원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가격이 싸고 또 맛이 괜찮다고 해서 주변 사무실이나 개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굉장히 적자입니다. 그래서 음식값을 조금 올려서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적자를 매우는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자판기, 사랑방 운영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업들은 수익사업이 아닌 걸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종로구 후생복지 운영규칙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 운영 사례 등을 비교, 검토해서 내실있고 투명한 운영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편성 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99년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불용액이 증가한 사유는 체력단련비 삭감과 정년 단축으로 인한 인원 감소로 인건비, 퇴직금의 불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효율화 및 건전재정 운영을 기하고자 예산편성 시 기준단가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과다산정 여부 검토 등 예산편성의 적정화를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의 과다 계상에 의한 낭비와 불용 처리를 줄이기 위해서 기준단가, 산출근거를 정확히 작성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편성된 예산도 소모성, 낭비성 경비는 수시 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간행물에 유료광고를 유치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종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제정(안)을 마련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15일에서 7월 4일까지입니다. 향후 동 조례의 제정이 완료되면 종로사랑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각종 고지서 등에 유료광고를 유치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시 의회와 협력해서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용의는 없는가 하셨습니다. 2000년 6월 7일 현재 우

리 구 자치법규는 204건입니다. '99년 우리 구 자치법규는 101건이 제정, 개정됨으로써 월평균 8.4건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마다 공청회, 설명회를 개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주민 전체의 이해득실과 직결된 사항, 예를 들면 의무부과 법규, 과세 등에 주민의 권리보장이 직결된 사항, 감사청구권이라든가 주민제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력해서 공청회 개최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炯述議員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촌마을에 대한 관광특구 또는 문화지구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은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해당 지역 안에 상가나 휴양·오락시설, 숙박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로 영업시간에 대한 시간제한을 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문화지구 지정은 관련법이 금년 1월 12일 공포되었으나 아직 시행령, 서울시 조례 등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에 대한 준비가 마련되는 대로 북촌마을에 대한 문화지구 지정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서공원의 전통혼례식장 설치 문제는 작년도 정기회 때도 말씀드렸다고 소유주가 현대건설 등 5개 회사가 지분권을 갖고 있으며 건물에 대한 하중 문제 등으로 이에 대한 결정이 어렵다는 현대건설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또 한번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서공원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운현궁에서 수시로 전통혼례식을 올리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창덕궁, 경복궁을 잇는 주요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그런 좋은 계기가 오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격동 국군기무사 터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대신 이 자리에 국립 현대미술관이나 역사 종합박물관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구와 또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문

화, 예술계 인사들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96년 2월 15일 국군병원 이전을 위한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이러한 각계각층의 열화와 같은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 자 일간신문에 따르면 문화관광부가 이 부지를 넘겨받아 현대미술관 신축부지로 쓰일 것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어서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북촌대축제를 개최할 의향은 없는가도 물으셨습니다. 이 축제도 서울시 4대문 안 역사문화탐방로 조성계획에 따라 시공 중인 북촌길 조성공사가 2001년에 완공되면 관련 전문가와 의원님들의 자문 등을 종합해서 검토하여 개최토록 검토하겠으며 나아가 북촌마을에 산재해 있는 문화사적지를 잘 보존해서 역사가구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서는 구청장이 역사 바로 세우는 구청장이 되어 달라고 충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칭찬 중에 문화 구청장이란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잘은 못하지만 문화구청장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추진이 안 되는 사유 및 대동정보상업고등학교 이전을 서울시 요구하고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동초등학교 주차장 문제는 어쩌면 의원님의 필생의 사업 같기도 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또한 저도 그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구청장직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것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 이 구청장의 의견에 잘 접근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우리 종로구청의 행정관리국장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것보다도 종로구의회 의원이 부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힘이 너무 미약하구나. 재동초등학교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그 효과도 아주 만점이고 환경도 그대로 밀에만 파면되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교육계의 사람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상부의 눈치를 너무 보고 또 그

지역에 애항심이 없습니다. 교장선생도 그 지역에 부임했다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부교육장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교육감한테 허가를 맡아오십시오 이렇게 결국에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교육감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중무소식입니다. 저도 참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나 또 시의원을 동원해서라도 다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동정보상업고등학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감상이 있습니다. 우리 종로가 이렇게 피폐해진 원인, 인구가 적은 이유는 우리 나라에 그야말로 유수한 사학이 이사를 가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개 남지 않은 우리 종로에 있는 학교가 이전해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이 있지 않은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局長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건의할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회동사무소에서 감사원간 도로개설 구간 중 경남빌라 옆 한옥 한 채가 돌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 주셨습니다. 가회동사무소에서 감사원간 도로개설공사 구간 중 경남빌라 옆 가회동 1-79번지 김태연 소재의 한옥은 도시계획선에 의거 수용한 건물이며 이 지역은 4종 미관지구로 경남빌라와 1-78번지 소재 건물은 신축 시 3m를 후퇴해서 건축함으로써 한옥이 돌출된 것으로 보이나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확장공사는 도시계획선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재동파출소 폐지에 따른 민생치안 대책을 질문 주셨습니다. 파출소 문제는 명륜3가동도 있고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관내 파출소 현황은 22개소이고 종로서 관할이 10개, 동대문이 9개, 서대문이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6월 1일 폐지 파출소는 5개소로 종로서 관할이 2개, 동대문이 2개, 서대문이 1개로 되어 있습니다. 재동, 와룡, 명륜, 창신3동, 구기파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서도 우리 구청과는 아무 협의가 없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자체적으로 폐지를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문의를 해봤더니 앞으로 경찰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파출소를 선진국 수준으로 거의 없앤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출소 한 군데 경찰관을 거기에 상주시키면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되기 때문에 외국같이 지금 통신도 발달되고 있어서 파출소를 없애는 대신 순시를 수시로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그러나 우리는 오랜 전통으로 파출소를 그야말로 든든한 배경으로 살아와서 당분간은 심정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 사실입니다. 각 동네마다 정말 내 마을을 사랑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자원방범대원을 자임하고 일하시는 참으로 훌륭한 분들이 계셔서 마음 든든하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게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마음 조이는 면도 있고 또 완벽하게 우리 치안상태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 의원님과 같다는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간사이신 崔康洵議員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에 청소년을 위한 놀이마당을 설치하는 방안을 질문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장래는 청소년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덜함 없는 투자를 해야 할 것은 이 청소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 우리 나라의 실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늦었지만 2개의 문화체육센터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시행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갯벌탐험이라든가 또 청소년 불령교실, 꿈나무 축구교실, 테니스교실, 또 청소년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무료 컴퓨터교실, 또 힙합댄스, 배드민턴대회 등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흔치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DDR 신설을 하면 어떤가 하는 이러한 세밀한 질문까지 해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구민회관과 구민생활관에 좀 알아봐 가지고 그런 공간과 시간이 있는가 봐서 적극 수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 창신동 지역에 대한 수해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장기간 6호선 공사로 그 지역 일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른 완공되어서 그야말로 깨끗한 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지하철공사 때문에 수해에 얼마나 걱정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개원 9주년을 맞이해서 작년에 그 수해에 대비해서 의원님들이 비에 젖은 채 뛰어다니던 그 모습을 연상하고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기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붕길 지하철 6호선 공사의 공정은 90%가 지금 완공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개통 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해 예방을 위해서 지하철건설본부와 작업구역 내 하수관, 빗물받이 유도수로 설치와 양수기 10대를 요소에 설치하여 대비하고 있고 집중호우 시를 대비해서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해서 현장인원을 상주시키고 유사시에 대비토록 조치 완료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하철건설본부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하수관 및 빗물받이 준설을 실시해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집중호우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설비를 잘 해놨다 하더라도 갑자기 기상이 변으로 집중호우가 있을 때 큰 위험이 닥치므로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하명해 주시면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야말로 참으로 구민생활에 정말 필요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의 답변이 부족한 것은 지적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이거나 또 직접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洪承台 鄭興鎮 區廳長님! 장시간 답변하

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 질문을 하지 못하신 나머지 의원들께서는 내일 6월 23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구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 없이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5時08分 散會)

○出席議員 19人

洪承台	吳錦南	鄭泰淳	李憲九
千相旭	玄壽漢	丁炳煥	李炯述
金福同	安載弘	劉燦鍾	朴鍾植
吳弼根	洪起瑞	崔康洵	金以煥
李東奎	金正大	宣相善	

○出席關係公務員

區廳長	鄭興鎮
副區廳長	盧張鐸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財務局長	董連浩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保健所長	李星世

